

건축을

잡담에게 바란다

잡담하라



내가 근래 학생들에 대해 주문하는 바는 바로 사유와 행동의 ‘자발성’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자발성이 타율성으로 대체돼 버린 듯하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만하다. 요즘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어려서부터 부모의 ‘지극 정성’과 사교육에 길들여져야 한단다. 그리고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도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게 아니니, 학생들은 재학 중 만 데 눈 돌릴 틈이 없다. 높은 학점에 좋은 스펙을 쌓아야 남들보다 입사지원서를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 교환학생도 가고 싶고, 현장실습도 해야 하는데,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생활비라도 별라 치면 한시가 아깝다. 게다가 건축학과 5년제 과정에서 매 과목마다 요구하는 게 원체 많다 보니, 그거 따라가기 바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 그거 참 사치다. “우리 때는 학생회도 활성화 됐고, 스스로 뭔가 잘 했는데, 너희들은 밥상을 이렇게 잘 차려줘도 왜 먹질 못하니?”라 채근하는 건, 대학 간판만으로도 갈 길 찾아가던 올드 보이의 푸념일 뿐이리라.

그런 이 때,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계간지 <잡담>의 탄생은 놀랍다. 특히 이 잡지가 햇수로 3년차를 맞이하고, 6호째를 발행한다는 사실은 더욱 그렇다. 잡지 하나 만들기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간 고된 게 아닌데, 여기까지 끌고 온 학생들의 추진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기성 건축계의 여러 잡지들의 명멸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이 잡지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지속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잡담>이 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 대학에서 출발한 ‘잡담’이 어떻게 다른 여러 대학 학생들의 ‘잡담’까지도 끌어낼 수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우리네 건축교육 체제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잡담’을 허하지 않은 까닭 아닐까? 너무도 딱딱하고 경직되어 젊은이들의 재기 발랄한 사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은 건 아니냐 말이다. <잡담>의 부제인 ‘하라는 설계는 안하고’는 이를 방증한다. 특히 건축학과가 설계 중심의 교육과정인 걸 다 알고 입학했다손 치더라도, 이후 다른 적성이나 진로를 발견한 학생들마저도 여전히 거기에 얽매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선생들의 반성과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기획이 요구된다.

하나 <잡담>의 발간이 꼭 이런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원래 우리는 말하는 존재, 잡담하는 존재, 수다 떠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건물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말이 따라야 한다. 건축이 우틸리티라스(utilitas)와 피르미타스(firmitas)만으로 끝이 아니고, 무언가 심미적 베누스타스(venustas)의 욕구나 의미를 유발한다면, 건축엔 말이 필요하다. (물론 우틸리티라스와 피르미타스 자체에도 여러 논의가 요구되지만 말이다.) 그 말은 ‘정담(正談)’일 수도 있고, 잡담(雜談)일 수도 있다. 잡사(雜史)와 야사(野史)가 있어야 정사(正史)가 가능한 것 아닌가. 어쩌면 그런 구분 자체도 사실 모호하고 때론 무의미하다. 게다가 원래 잡지(雜誌)란 잡담을 신는 매체 아니던가. 나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잡담과 잡설과 뒷담화와 구라를 펼치기 바란다. 그러한 잡론(雜論) 속에서야 정론(精論)이 꽃필 수 있다. 게다가 아직 학생이니, 때로 있을지 모를 잡담의 실언마저도 좀 용인되지 않겠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생들이여 너무 쉽게 기성의 체제에 동화되지 말길 그리고 계속해서 어눌하고 거칠지만, 날카롭고 신선한 맛을 간직하길 여기에 희망이 있다. 우리 건축의 희망, 우리 젊은이의 희망! 그래, 이렇게, 건축을 잡담하라.***

김현섭 교수님_고려대 건축학과